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친구관계 비교 연구: 친구의 지원, 갈등해결 방식 및 친구관계망

고 윤 주* · 이 은 해* · Morton J. Mendelson**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McGill대학교 심리학과**

청년기 초기부터 급격히 발달하는 친구관계는 양과 질 면에서 청년기 후기의 대학생들 삶에 중요한 관계로 부상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들이 맺고 있는 친구관계의 질과 구조적 특성을 비교하고, 두 나라간 차이에 '집단주의적 문화 성향'과 한 사회 안에서 공유되는 '친구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은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 각 210명씩 총 420명이었고, 이들은 무선적으로 세 집단에 배정되었다. 첫째 집단은 친구의 지원, 둘째 집단은 갈등해결 방식, 셋째 집단은 친구관계망에 대한 질문지에 응답하였는데, 세 집단 모두 집단주의, 친구에 대한 기대, 그리고 친구에 대한 만족감 설문지도 함께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대학생들은 캐나다 대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수의 안정된 친구 관계로부터 얻어지는 사회정서적 지원과 그것을 통한 욕구 충족보다는 폭넓은 친구관계 유지와 갈등상황에서 친구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양국간의 차이에 한국 대학생들의 집단주의적 성향과 친구에게 양보해야한다는 우리사회의 기대가 부분적으로 기여하고 있었다.

주요어 : 친구관계, 친구의 지원, 갈등해결방식, 친구관계망, 집단주의, 친구에 대한 기대

전생애 발달(life-span development)의 시각에서 볼 때, 한 개인의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에서 친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출생부터 대학생

시기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혈연 관계의 또래와 비혈연 관계의 또래가 모두 친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3-6세 아동의 사회관계망에서 또래가

- 1) 이 연구는 한국 학술진흥 재단(KRF-2000-042-C00192)과 캐나다 McGill대학교 심리학과의 지원으로 수행 되었음.
- 2) 이 논문에 대한 연락은 이은해,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120-749 / T : 2123-3148 / ührhee@yonsei.ac.kr로 하기 바람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30% 정도가 된다(Feiring & Lewis, 1988). 정확한 숫자를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유럽과 아프리카 및 라틴계 미국 아동의 사회관계망을 조사한 Levitt, Guacci-Franco, 그리고 Levitt(1993)에 따르면, 7세부터 14세까지 친구의 수가 증가하는데, 7 ~ 10세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14세에 이르러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한다. 한국과 독일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윤주(1997)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관계망 전체에서 또래의 비율이 양국 모두 70%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혈연관계가 아닌 친구의 비율이 한국의 경우 30%, 독일은 34%를 차지했다. 본 연구자들의 사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맷고 있는 모든 사회적 관계 중에서 비혈연 친구 관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75%에 달했다.

대학생 시기에 친구관계는 양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친구가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청년기 초기부터 후기까지 친구관계는 점점 더 민족스러운 관계로 발달해 간다. 즉, 사회정서적 지원과 서로에게 공평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는 발달적 양상을 보이고 이와 함께 친구에 대한 애정과 만족감도 증가한다(고윤주, 이은해, Mendelson, 2001; 이은해, 고윤주, 오원정, 2000). 이는 대학생들의 삶에서 친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 대학생 35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치관 조사(김은정, 이정윤, 이기학, 한종철, 1995)에서 보면, 대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원만하고 폭넓은 인간관계’가 지적되었다. 또한 대학생들이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의논 상대는 동성 친구였다(김재은, 이은순, 강순화, 1998).

청년기 후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이전 시기에 비해 성숙한 친구관계를 맺으며, 다른 친밀한 관계들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이다. 이러한 특성의 배경 요인으로는 첫째, 친구관계는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관계이므로 사회적으로 규정된 기본적인 의무나 책임이 없다. 둘째,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된 시기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가정을 이루기 전이므로, 가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셋째, 이성 친구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연인 관계에 있는 이성 친구의 유무가 대학생들의 동성 친구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Koh, Mendelson, & Rhee, 2001)가 있다. 이처럼 어느 정도 성숙되고 비교적 독립적인 상태에 있는 대학생들의 친구관계는 한 문화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숙한 사회관계의 원형적 특성을 연구하는데 좋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친구관계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성 및 타문화와의 차이점을 이해하게 된다면, 친구관계의 발달 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관계, 즉 부모-자녀 관계나 형제 관계의 발달을 연구하는 데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적 요소가 다른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들의 친구관계를 비교하는 것이다. Suh와 동료들의 연구(Suh, Diener, Oishi, & Triandis, 1998)에 따르면, 한국은 집단주의적 성향이, 그리고 캐나다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주의적 성향이 높은 한국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은 캐나다 대학생들의 친구관계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친구관계를 유지해가는 방식의 고유한 특성이 비교적 뚜렷하게 부각되리라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문화 비교 연구를 할 때,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는 어떠한 기준을 준거로 비교 작업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유사한 조건의 친구관계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인 대도시의 대학생들이 ‘가장 친하게 지내는 한 친구’와의 관계를 비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관계의 친밀한 정도뿐 아니라 친구에 대한 만족도 수준도 검증한 후 비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정적 감정이 낮을수록 높을 것이라는 가정(Bradburn, 1969)하에서, 두 가지 감정을 통해 측정하였다.

둘째는 나타난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적 차이에 기여하는 두 가지 가능한 변인을 설정하였다. 첫째, 문화적 성향이 집단주의적인가 아니면 개인주의적인가에 따라 인간관계를 유지해 가는 방식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개인적 성취에 더 관심이 있는 반면, 집단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고윤주, 2001). 둘째, 인지적 차원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한 문화 안에서 공유되고 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결정된다(Ginsburg, 1988; La Gaipa, 1987)고 한다. 따라서 친구관계는 어떠해야 한다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믿음이나 기대가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틀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들의 친구관계가 질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에 문화적 성향과 친구관계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모든 사회관계는 개인의 사회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회적 자원이다(Weiss, 1974). 따라서 관계의 질에 관한 논의를 할 때, 필요한 욕구를 어느 정도나 지원해주고 있는지가 중요한 변수로 지적된다. 그러나 한편, 인간이 사회관계를 맺게될 때 빠지게 되는 딜레마가 있다. 사회정서적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독립성을 침해받게 되고 부담감, 의존감, 관계의 불공평함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La Gaipa, 1990). 지원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공평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Walter, Walter, & Berscheid, 1978). 따라서 관계의 질을 연구할 때, 친구의 사회정서적 지원과 함께 친구관계의 공평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친구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정서적 지원은 다양하지만, Aboud와 Mendelson(1992)의 조사에 의하면 다음의 여섯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친구와 함께 하면서 얻게되는 ‘교제의 즐거움’, 도구적 지원인 ‘도움’, 친구에게 느끼는 ‘친밀감’, ‘신뢰’, ‘인정’,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와 격려를 주는 ‘정서적 안정’의 여섯 가지 지원이 있다.

한국과 캐나다의 친구관계 또는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의 친구관계 차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상의 여섯 가

지 사회정서적 지원이 두 나라의 친구관계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몇 가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보다는 캐나다의 친구관계가 더 친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독일의 청소년들보다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 놓지 않는다는 Park(1996)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는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Won-Doornink, 1985)와 일관성이 있다. Henderson과 Argyle (1986)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이나 이탈리아 사람들보다 홍콩 사람들은 직장 동료들과 친밀하게 터놓고 지내는 것을 금기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종합하면, 유럽이나 미국인 보다 한국을 포함한 동양인들이 비혈연적 사회관계에서 속마음을 터놓고 친밀하게 지내는 경향이 약하므로 한국의 대학생들보다 캐나다 대학생들의 친밀감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둘째, 친구에 대한 칭찬과 인정에 관한 문화 비교 연구 결과도 비교적 일관적이다. Park(1996)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은 독일 청소년들에 비해 칭찬이나 인정을 훨씬 적게 하였다. 일본인과 미국인을 연구한 Barunlund와 Araki (1985)의 연구에서, 미국인들은 칭찬을 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본인들에게 칭찬은 때때로 당황스럽거나 어색하게 느껴지는 익숙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한다. 일본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칭찬과 인정이 ‘집단적 자아’가 아닌 ‘개인적 자아’를 키워주는 행동(Kim, 1997; Triandis, 1995)임을 고려한다면, 집단주의적 성향이 높은 문화에서는 칭찬

과 인정을 적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들은 캐나다 대학생들보다 친구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덜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청소년들은 독일 청소년들보다 친구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는 연구결과 (Park, 1996)가 있으나, 이 결과만으로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들의 친구에 대한 신뢰 정도를 예측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친구의 지원 기능 중 ‘교제의 즐거움’, ‘도움’, ‘신뢰’, ‘정서적 안정’에 대해서는 가설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친구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두 번째 변인은 관계의 공평성이다. 관계의 공평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서로 주고 받은 지원의 양이 공평한지, 또는 관계 안에서 개인의 권한이 어느 정도나 행사되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의 공평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갈등 해결 상황에서 관계를 맷고 있는 두 사람의 관심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조사하였다.

사회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 방식을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Rahim (1993; Rahim & Magnier, 1995)의 모델을 기초로 네 가지 갈등 해결 방식을 선정하였다(De Vliert, 1997). 첫 번째는 ‘회피’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피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협력’으로 두 사람의 관심사가 모두 충족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방식은 ‘지배’로 상대방의 관심사를 무시하고라도 자신의 관심사를 관철시키려는 해결 방식이다. 네 번째는 ‘양보’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관심사에 집중하는 해결 방식이다.

이상의 네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갈등해결 방식은 한국과 캐나다의 경우 모두 공평성과 호혜성을 최대화하는 ‘협력’의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관계의 공평성을 선호하는 정도는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각적이고 공평한 거래 관계는 서로에 대한 미래의 의무를 최소화함으로써 상호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문화에서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문화에서 보다 관계의 공평성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Yum, 1987). 반면에, 한국에서는 상대방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자신의 것은 양보하는 미덕이 강조되는 유교적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Kim, 1997), 캐나다 대학생보다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친구에게 더 많이 양보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사회관계의 구조적 차이는 관계의 질적인 차이에 영향을 미치므로, 친구관계를 연구할 때 질적인 면과 구조적인 면을 모두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dams & Blieszner, 1994).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계의 구조적 특성을 두 가지 변인으로 접근하였다. 첫째는 대학생들이 맷고있는 친구관계의 수, 즉 친구관계망의 크기이고 또 다른 변인은 관계망에 속한 친구들이 서로 얼마나 알고 지내는지를 나타내는 관계망의 밀도였다.

친구관계망의 크기는 가장 친한 친구가 지원해주는 지원의 양과 관련이 된다. 친구가 많다면 가장 친한 친구에게 기대하는 지원의 양이 적어지는 반면, 친구가 많지 않다면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에게 기대하는 지원의 양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관계망의 밀도는 친구관계망의 안정성을 나타낸다. 친구관계망을 구성하고 있는 친구들이 서로를 잘 알고 지낸다면 친구들에 대한 신뢰가 더 높을 것이고, 가장 친한 친구에 대

한 믿음도 강할 것으로 생각된다. 친구관계망에 대한 문화 비교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양국 대학생들의 관계망 특성 차이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Park(1996)의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들은 독일 청소년들에 비해 친구의 수는 비슷하나 친구를 사귀는 기간이 짧고, 관계망의 밀도도 낮았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독일 청소년들보다 한국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동안 이사를 더 자주 한 것과 관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이 대학생들에게도 적용이 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친구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에 관해서는 가설을 세우지 않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론적 고찰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들의 친구관계에서 정서적 지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두 나라 대학생들이 친구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두 나라 대학생들의 친구관계망 크기와 밀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두 나라에서 나타난 친구관계의 질적 차이와 구조적 차이는 두 문화의 집단주의적 성향 및 친구에 대한 기대와 관련이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설정된 가설을 정리하면, 친구의 사회정서적 지원 면에서 캐나다의 대학생들은 한국의 대학생들보다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칭찬과 인정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갈등해결 방식에서 한국 대학생들은 캐나다 대학생들보다 양보를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측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 대학생 210명과 캐나다 대학생 210명으로 총 420명이다. 한국대학생들은 서울에 소재한 Y대와 K대에서 다양한 학부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단위 교양 강의에서 표집되었는데, 남학생들 중에서 군복무를 마친 학생들은 연령과 경험의 차이가 있어 제외되었다. 캐나다 대학생들은 몬트리올에 소재한 McGill 대학에서 한국과 유사한 조건의 강의에서 표집되었다. 캐나다 대학생의 95%는 캐나다에서 출생하였으며, 이들 중 86%가 영어를, 14%가 불어를 첫 번째 언어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포함되었으나, 한국계 캐나다 학생들은 제외되었다. 남녀 동수로 표집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모두 20세였다. 연구에 포함된 측정 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응답에 필요한 시간이나 동기화 문제를 고려할 때, 420명 모두에게 계획한 연구 변인들을 다 측정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420명중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 각각 210명을 무선팩으로 세 집단(표1 참조)중의 하나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유형의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세 집단은 공통적으로 집단주의 설문, 친구에 대한 기대, 친구에 대한 만족감에 응답하였으며, 첫 번째 집단은 친구의 지원 기능을 추가해

서 응답했고, 두 번째 집단은 친구와의 갈등해결 방식을, 그리고 세 번째 집단은 친구관계망 설문지를 추가해서 응답했다.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설문지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의 설문지 중에서 친구에 대한 만족감, 친구의 지원, 그리고 친구와의 갈등 해결 방식에 관한 설문지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을 기록하고 그 친구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집단주의: Yamaguchi(1994)가 제작한 집단주의 척도 (Collectivism Scale)중에서 11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친구들 집단 안에서 자신이 취할 태도(예, 나는 우리 집단의 성원들이 모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에 관해서 5점 척도(0~ 4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주의적 성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에게 적용했을 때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다소 낮았는데, 한국은 .59, 캐나다는 .66으로 나타났다.

친구에 대한 기대: 본 연구자들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각 문항에 대해서 친구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야하는지(-4 ~ 4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친구의 지원에 대한 기대는 여섯가지 기능에 대해 각각 두 문항씩 12문항으로 되어 있고, 네 가지 갈등해결 방식에

표1. 질문지 유형별 한국과 캐나다의 연구 대상 수

집단에 따른 질문지 유형	한국		캐나다	
	남	녀	남	녀
집단1 : 집단주의, 친구에 대한 기대, 친구에 대한 만족감, 친구의 지원	35	35	35	35
집단2 : 집단주의, 친구에 대한 기대, 친구에 대한 만족감, 갈등해결 방식	35	35	35	35
집단3 : 집단주의, 친구에 대한 기대, 친구에 대한 만족감, 친구관계망	35	35	35	35

대해서는 각각 한 문항씩 네 문항을 사용하였다. 친구관계망 크기와 밀도에 관한 문항도 각각 한 문항씩 두 문항이었다. 친구의 기능에 관한 12문항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본 연구 대상에게 적용했을 때, 한국이 .84, 캐나다가 .86이었다.

친구에 대한 만족감: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통해 측정했으며, 긍정적 감정은 Mendelson과 Aboud (1999)가 제작한 McGill 친구관계 질문지-친구에 대한 애정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 -Respondent's Affection)편에서 애정을 측정하는 문항과 만족감을 측정하는 문항 각각 4 개씩 8 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선행연구(Mendelson & Aboud, 1999)의 요인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요인부하량이 높은 문항들을 선정하였으며, 6점 척도(05)로 된 8문항의 내적합치도 Cronbach α 는 한국이 .92, 캐나다가 .94였다.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Mendelson (1995)이 제작한 McGill 친구관계 질문지-부정적 감정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Negative Feelings)을 사용하였다. 부정적 감정 문항들은 친구와의 갈등, 상대적 무능감, 관계의 소원함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점 척도(08)로 된 14문항의 내적합치도 Cronbach α 는 한국이 .90, 캐나다가 .89였다.

친구의 지원: Mendelson과 Aboud (1999)의 McGill 친구 관계 질문지-친구의 기능 (The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 Friend's Functions)에 의해서 측정되었다. 이 질문지는 여섯 가지 친구의 지원 기능(교제의 즐거움, 도움, 친밀감, 인정, 신뢰, 정서적 안정)에 대해 각각 5 문항씩 총 3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점 척도(0~ 8)로 된 문항들의 각 기능별 내적합치도

Cronbach α 는 한국이 .84에서 .89까지였고, 캐나다가 .89에서 .90이었다.

갈등해결방식: Mendelson, Goldbaum, 그리고 Semeniuk (1995)가 제작한 McGill 친구관계 질문지 - 갈등해결 방식(The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Conflict Resolution Styles)을 사용하였다. 가장 친한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취하는 4 가지 방식('회피', '지배', '양보', '협력')에 대해서 각 4 문항씩 1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0~ 4)로 된 문항들의 네 가지 하위영역 별 내적합치도 Cronbach α 는 한국이 .69에서 .76이었고 캐나다가 .75에서 .80이었다.

친구 관계망의 크기와 밀도: 본 연구자들이 제작한 설문을 표1에서 보듯이 질문지 유형에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은 먼저 자신의 친구를 20명 한도 내에서 원하는 수만큼 기록한 후, 친구 각각에 대해서 친밀한 정도(아주 친한 친구, 친한 친구, 보통 친구)와 친구들간의 아는 정도를 표기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은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원적인 친구의 수에 있었으므로, 위의 범주 중에서 아주 친한 친구의 수를 친구관계망의 크기로 설정하였다. 관계망의 밀도는 다음의 공식으로 구해졌다. 밀도 = $K / [N \times (N-1) / 2]$, 여기서 N = 아주 친한 친구의 수, K = 그 친구들 중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친구의 수이다(Fischer & Shavit, 1995).

이상의 도구들은 본 연구자들에 의해서 한국 말로 번역되었고, 다시 심리학을 전공하고 영어와 한국어를 하는 한국계 캐나다 교포 대학생에 의해서 영어로 재번역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의미상의 차이가 나타난 부분들은 원 제작자와 본 연구자간의 논의를 통해서 수정되었다.

연구 절차와 자료 분석

한국에서의 자료 수집은 2000년 12월초에, 캐나다에서의 자료 수집은 2001년 1월에서 7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한국과 캐나다 모두 대단위 강의 시간에 담당 교수의 허락을 받아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각 강의실마다 세 가지 질문지 유형을 비슷한 비율로 준비하여 무선으로 나누어주었다. 학생들이 응답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응답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강의 시간 동안에 응답을 마치고 제출하도록 하였고, 캐나다에서는 각자 응답한 질문지를 일정한 장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평균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90% 정도의 학생들이 질문지를 제출하였다. 수집된 질문지 중에서 응답 누락이나 미비한 질문지를 제거한 후, 성별 그리고 질문지 유형을 동일한 수가 되도록 무선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8.0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는데, 두 나라

의 친구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ANOVA와 ANCOVA가 실시되었다.

결과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들의 집단주의적 성향과 친구에 대한 기대 그리고 만족감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들의 친구 변인들에 대한 집단 차이를 검증하기 전에 몇 가지 사전 분석을 하였다. 첫째, 각 변인들의 성차를 점검하였는데,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 모든 변인에서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캐나다 대학생들의 경우 여섯 가지 사회정서적 지원과 네 가지 갈등 해결 방식 모두에서 성차가 유의하였으나, 친구관계망의 크기나 밀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관심은 성차보다 캐나다 대학생들과

표 2. 한국과 캐나다의 집단주의적 성향, 친구에 대한 기대, 그리고 친구에 대한 만족감 평균(SD)과 변량분석 결과 (N=420)

집단주의적 성향	평균(SD)		F
	한국	캐나다	
친구에 대한 기대	1.98 (.44)	1.47 (.49)	129.54***
사회정서적 지원(여섯가지 지원의 평균)	2.48 (.68)	2.89 (.66)	12.72***
갈등 해결 방식			
회피	.92 (2.08)	.35 (1.96)	3.06
협력	2.52 (.95)	2.24 (1.09)	4.42*
지배	-2.25 (1.55)	-1.20 (1.76)	3.09
양보	1.42 (1.26)	-.73 (1.64)	54.77***
친구 관계망			
소수의 친구들하고만 가깝게 지내는 것	-.93 (1.71)	.51 (1.29)	35.64***
서로의 친구들과 친구가 되는 것	1.35 (1.26)	.70 (1.04)	11.34***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만족감			
긍정적 감정	3.66 (.92)	3.80 (.98)	2.07
부정적 감정	1.66 (1.05)	1.79 (.94)	1.88

* p<.05 ** p<.01 *** p<.001

한국 대학생들의 비교에 있었으므로 이후의 양국 간 비교 분석은 성차를 통제한 후 실시하였다.

둘째, 한국과 캐나다의 문화적 성향이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주의와 친구에 대한 기대 변인에서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대학생과 캐나다 대학생들의 집단주의적 성향의 평균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한국 대학생들이 캐나다 대학생들에 비해서 집단주의적 성향이 높았다.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들이 친구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캐나다 대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 친구에게 사회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기대했는데, 이는 캐나다 대학생들이 친구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사회정서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경향이 더 높음을 나타낸다. 친구와의 갈등해결 방식에 대한 생각도 협력과 양보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 대학생들은 캐나다 대학생들보다 함께 협력해서 갈등을 해결하거나 또는 자신이 양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특히, 양보의 경우, 캐나다 대학생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한국 대학생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었다. 친구관계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개념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한국 대학생들은 캐나다 대학생들에 비해 소수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캐나다 대학생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친구의 친구들과 서로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도 강한 편이었다.

셋째, 한국 대학생들과 캐나다 대학생들이 선택한 한 명의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만족감의 차이를 분석했을 때, 긍정적 감정에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갈등, 상대적 무능감, 관계의 소원함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본 연구의 대상인 한국과 캐나다의 대학생들은 문화적 성향과 친구관계에 대한 기대는 다르지만,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만족감은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들의 친구관계 비교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들의 친구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먼저 캐나다 대학생들의 성차가 유의했던 점을 고려하여 성차를 통제하고 각 변인에 대해서 공변량분석을 하였다. 이 결과가 표3의 F검증 I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친구의 지원을 살펴보면, 캐나다 대학생들이 친구의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과 일관되게 전반적으로 캐나다 대학생들의 점수가 높았다. 특히 ‘교제의 즐거움’, ‘신뢰’, ‘인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캐나다 대학생들은 한국 대학생들보다 친구와 만나서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더 많이 보냈고, 친구에 대한 신뢰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친구로부터 칭찬이나 인정도 많이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더 친밀하고, 인정도 더 많이 해주는 관계를 맺고 있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후자는 지지되었지만, 친밀감에 대한 가설은 부정되었다. 또한 ‘교제의 즐거움’과 ‘신뢰’에서 나타난 유의한 차이는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이다.

갈등해결 방식의 차이를 검증했는데, 양보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한국 대학생들

이 캐나다 대학생들보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친구에게 더 많이 양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한국 대학생들의 친구에 대한 기대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친구관계망에 관한 결과를 보면, 관계망의 크기와 밀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한국 대학생들은 캐나다 대학생들보다 더 많은 수의 친구들을 사귀고 있었으며, 캐나다 대학생의 친구들은 한국 대학생의 친구들보다 서로를 알고 지내는 경향이 더 높았다. 한국 대학생들이 친구를 많이 사귀고 있었던 점은 친구에 대한 기대와 일치하는 결과이나, 한국 친구들이 캐나다 친구들 보다 서로를 알고 지내는 경향이 낮았다는 결과

는 친구에 대한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집단주의와 친구에 대한 기대의 영향

한국 대학생들과 캐나다 대학생들의 친구관계에서 나타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원인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성향’과 ‘친구에 대한 기대’가 친구관계에서 나타난 차이에 어느 정도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먼저 집단주의적 성향을 통제해서 분석하였고(표3 II 참조), 다음에 친구에 대한 기대를 통제해 분석하였다(표3 III 참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다 통제해서 분석해 보았다(표3 IV 참조). 각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차

표 3. 한국과 캐나다 친구관계 변인들의 평균(SD)과 공변량분석 결과

	평균(SD)		F			
	한국	캐나다	I	II	III	IV
친구의 지원 (집단1: N=140)						
교제의 즐거움	5.72 (1.41)	6.34 (1.07)	9.04**	13.16***	2.83	3.54
도움	5.53 (1.36)	5.68 (1.41)	.46	2.26	.61	.09
친밀감	6.12 (1.43)	6.23 (1.51)	.24	.01	.62	3.96*
신뢰	6.38 (1.35)	7.23 (.98)	18.16***	10.63***	8.66**	1.38
인정	5.25 (1.61)	5.86 (1.52)	5.69*	6.48*	1.43	.89
정서적 안정	5.90 (1.38)	6.10 (1.26)	.93	1.51	.35	.69
갈등 해결 방식 (집단2: N=140)						
회피	1.67 (.75)	1.55 (.93)	.75	3.43	.53	2.44
협력	2.50 (.65)	2.32 (.84)	2.27	.07	.54	.00
지배	1.83 (.73)	1.81 (1.00)	.02	.01	.00	.07
양보	1.54 (.65)	.99 (.60)	27.24***	6.67**	9.8**	2.27
친구관계망 (집단3: N=140)						
관계망 크기	4.56 (2.92)	3.38 (2.37)	6.65**	5.76*	4.16*	3.91*
관계망 밀도	.61 (.30)	.77 (.29)	7.84**	10.58**	7.91**	10.30**

I: 성 통제, II: 성 + 집단주의 통제, III: 성 + 기대 통제, IV: 성 + 집단주의 + 기대 통제

* p<.05 ** p<.01 *** p<.001

이가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면, 친구관계에서 나타난 차이에 그 변인이 기여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의 F값 II에서 보면, 집단주의적 성향을 통제했을 때, 성만을 통제한 I의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친구에 대한 기대를 통제했을 때(F값 III), 친구의 지원 중에서 ‘교제의 즐거움’과 ‘인정’에 나타났던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모두 통제했을 때(F값 IV), 친구의 지원 중에서 ‘신뢰’에 나타났던 차이도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으나, 흥미롭게도 ‘친밀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두 변인을 통제한 후, 통계적으로 수정된 ‘친밀감’의 평균 점수가 한국은 6.46이었고, 캐나다는 5.90이었다. 이는 한국 대학생 친구들의 잠재적 ‘친밀감’은 캐나다보다 높지만, 집단주의적 성향과 친구와의 친밀함 즉, 속마음을 터놓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캐나다보다 덜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원점수를 비교할 때 친밀감에서 두 나라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갈등 해결 방식 중에서 ‘양보’는 두 변인을 모두 통제했을 때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양보에서 나타난 차이가 우리 문화의 집단주의적 성향과 친구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에 의해 영향받고 있음을 나타내며, 표 3의 II와 III에서 F값이 다소 축소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친구관계망은 변인의 통제조건에 관계없이 F값이 모두 유의하였다.

종합하면, 집단주의적 성향보다는 친구에 대한 기대가 두 나라간 친구관계의 차이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친구의 지원에서 두드러졌다. 갈등 해결 방

식에서는 두 가지 모두가 비슷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양국간의 친구관계를 설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친구관계의 질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문화적 성향과 친구관계에 대한 인식이 실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변인으로 친구 관계의 구조적 측면에서 나타난 차이들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논 의

사회성 발달은 인지나 정서 발달에 비해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쉽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문화의 교류가 점점 더 활발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관계의 발달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관계발달의 문화 비교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들이 맺고 있는 친구관계의 차이와 관계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탐색해 보았다.

우선, 두 나라 대학생들이 보여준 한국과 캐나다의 문화적 성향과 각 나라에서 생각하는 친구관계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대학생들은 캐나다 대학생들보다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했다. 둘째, 친구에 대한 기대도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즉, 캐나다 대학생들은 한국 대학생들보다 친구들에게 사회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기대하고 있었다. 반면에, 한국 대학생들은 캐나다 대학생들보다 친구의 지원을 덜 기대했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양보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양보’에 관해서

는 두 나라 대학생들의 견해가 상반되어서 흥미로웠다. 한국 대학생들은 양보를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었으나, 캐나다 대학생들은 양보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생들은 소수의 친구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친구의 친구는 서로 알고 지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반면에 캐나다 대학생들은 소수의 친구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으며, 또한 친구의 친구가 알고 지내야한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생각이 한국 대학생들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종합해보면, 캐나다 대학생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대학생들은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했고, 소수의 친구와 가깝게 지내며 자신의 욕구 충족에 충실하려고 하기보다는 폭넓은 친구관계를 갖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했으며,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 충족보다는 친구를 위해 양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배경의 차이를 가진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들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의 실제 모습을 보고했을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나타났다. 첫째, 문화나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두 나라 모두 높았고, 부정적 감정은 모두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만족감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만족 정도가 유사한 두 나라의 친구관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캐나다 대학생들은 한국 대학생들보다 친구의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친구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친구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한국 대학생들보다 캐나다 대학생들은 더 많이 그렇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캐나다 대학생들이 친구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정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다. ‘친밀감’에 대해서는 가설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한국 대학생들이 문화적 압력이나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친구관계에 대한 기대, 즉,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일에 대한 방어적 태도를 통제한다면, 실제로는 한국 대학생들이 더 친밀한 친구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비록 이 부분에 관한 본 연구의 가설은 추후 더 다양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지만, 서구인들에 비해 동양인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금기시 한다는 추론(Henderson & Argyle, 1986; Park, 1996; Won-Doornink, 1985)은 부정되지 않았다. 한편, 이러한 차이에 문화적 성향이나 친구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한 공변량 분석에서, 친구의 지원과 관련된 행동은 집단주의적 성향보다는 친구에 대한 기대가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적 성향을 함께 고려할 때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었다.

셋째, 공평한 갈등해결 방식인 ‘협력’에서 양국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대학생들의 친구관계가 캐나다 대학생들보다 덜 공평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확실히 한국 대학생들은 캐나다 대학생들보다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할 때 자신의 관심사보다는 친구를 배려하는 양보의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

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이 캐나다 대학생들보다 양보를 더 많이 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공변량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갈등 해결 방식은 집단주의적 성향과 친구에 대한 기대가 거의 동등하게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친구는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친구관계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집단주의적 사고 방식과 일관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서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으로 추론된다.

네덜란드(Buunk & Prins, 1998)와 캐나다(Mendelson & Kay, 2001) 대학생들의 친구관계 연구에 따르면,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불평등한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친구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며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한다.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은해 외, 2000; 고윤주, 이은해 2000)에서도 ‘양보’는 친구에 대한 불만족과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양보’는 미덕일지라도 그 결과가 자신과 친구 모두에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 대학생들은 캐나다 대학생들보다 친밀하게 지내는 친구들을 더 많이 갖고 있었지만, 친구들끼리 서로 알고 지내는 정도는 더 낮았다. 한국 대학생들의 친구관계망이 더 큰 것은 친구에 대한 기대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결과였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원만하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는다는 김은정과 그의 동료들(1995)의 조사 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그러나 공변량 분석 결과를 보면, 문화적 성향과 친구에 대한 기대를 모두 고려한다고 해도 친구관계망 크기의 두 나라간 차

이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었다.

한편, 친구관계망의 밀도는 한국 대학생들보다 캐나다 대학생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친구관계에 대한 양국의 기대 차이와는 다른 결과이다. 집단주의적 성향이나 친구에 대한 기대보다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친구가 많을수록 그들이 서로 알고 지낼 확률은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Park(1996)의 한국과 독일 청소년 비교 연구의 결과와 같이, 한국 대학생들이 캐나다 대학생들보다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친구들이 서로를 알고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적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추후 분석으로 친구관계망에 속한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온 기간을 조사하였는데, 한국은 평균 4.26년 ($SD=2.10$), 캐나다는 7.18년 ($SD=3.62$)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망의 크기와 관계유지 기간을 통제한 후 관계망 밀도 차이를 비교했을 때는 양국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도 친구관계의 지속기간이 친구관계망의 밀도와 관련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들에게 나타난 친구관계의 구조적 차이를 종합하면, 캐나다 대학생들에 비해 한국 대학생들은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하며, 그들이 서로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강했다. 그러나 실제로 친구를 많이 사귀기는 하였으나, 친구 수가 많고 또한 친구를 사귀는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은 낮았다. 결과적으로 한국 대학생들이 맺고 있는 친구관계의 폭은 넓지만 안정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의 평균 연령이 20세인 점과

사귄 기간을 고려하면, 대학생들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이전부터 사귀어 온 친구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활동 안 친구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은 대학생 활동 이전의 친구 관계와 연계되어 있으며, 초, 중, 고등학교 시절 안정되지 못한 주거환경과 친구관계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이 친구들 간의 신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친구의 지원 중의 하나인 신뢰감을 측정한 집단과 관계망 특성을 측정 한 집단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직접 분석하지는 못했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에서 검증해 볼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연구의 제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심리학 연구의 대상으로 학생들이 많이 선정된다. 이는 많은 연구 대상을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데, 청년 후기에 속하는 연구 대상으로 대 학생을 선정할 때 대표성을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두 나라의 친구관계를 비교하는 상황 에서, 사회적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 집단을 선정한 것은 연구 여전상 효율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양국 의 인구 전체에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인 종적 배경이 더 다양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두 사람 이상이 관련되는 사회적 관계를 연구하면서,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관계를 연구한 점이다. 한 관계에 속한 두 사람 모두를 조사하는 것이 간단한 과제는 아니지만, 관계를 더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정보 를 얻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공유된 방법의 변량

(shared method variance)’에 의한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친구관계에 속한 양자 모두를 연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캐나다 대학생들에 비해서, 한국 대학생들은 소수 의 안정된 친구 관계로부터 얻어지는 사회정서적 지원과 그것을 통한 욕구충족보다는 폭넓은 친구 관계 유지와 갈등상황에서 친구에게 양보하는 미 덕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한국 대학생들의 집단주의적 성향과 친구관계에 대한 인식 및 기대와 상당 부분 관련이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만족도는 두 나라 모두에서 아주 높 았다. 이러한 결론은, 문화가 다를 때 만족스러운 친구관계를 맺고 유지해 가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 문화의 성향과 이상적인 관계 유지 방식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관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참고문헌

- 고윤주 (1997). 한국과 독일 청소년의 사회관계망: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서 나타난 구조 및 기능적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2), 1-16.
- 고윤주 (2001). 청소년기 초기의 부모-자녀 및 친구 관계: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개념을 적용한 한국과 독일 비교 연구. *한독교육학 연구*, 6(1), 39-56.
- 고윤주, 이은혜 (2000). 대학생의 친구관계에서 친구의 지원과 갈등 해결 방식이 친구에 대

- 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 연구, 38(2), 149-167.
- 고윤주, 이은해, M. J. Mendelson(2001). 친구에
대한 만족감을 예언하는 친구의 지원, 갈
등 해결 방식 및 친구 관계망간의 구조
모델: 청년 초기, 중기, 후기 비교. 한국심
리학회지: 발달, 14(3), 25-42.
- 김은정, 이정윤, 이기학, 한종칠 (1995). 1994학년
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세상담연구, 11,
80-197.
- 김재은, 이은순, 강순화 (1998). 한국대학생의 삶
의 만족도.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9집. 서
울: 집문당.
- 이은해, 고윤주, 오원정 (2000). 청소년기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지원 및 갈등해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105-121.
- Aboud, F. E., & Mendelson, M. J. (1996).
Determinants of friendship selection and
quality: Developmental perspectives. In
W. M. Bukowski, A. F. Newcomb,
and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87-11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dams, G. R., & Blieszner, R. (1994). An
integrative conceptual framework for
friendship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163-184.
- Barunlund, D. C., Araki, S. (1985). Inter-
cultural encounters: The management of
compliments by Japanese and
America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6, 9-26.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Buunk, B. P., & Prins, K. S. (1998). Loneliness,
exchange orientation, and reciprocity in
friendship. *Personal Relationships*, 5,
1-14.
- De Vliert, E. V. (1997). *Complex interpersonal
conflict behaviour: Theoretical frontiers*.
East Sussex: Psychology Press.
- Feiring, C., & Lewis, M. (1988). The child's
social network from three to six years:
The effects of age, sex, and
socioeconomic status. In S. Salzinger, J.
Antrobus, & M. Hammer. *Social
networks of children, adolescents, and
college students* (pp. 93-112).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Ginsburg, G. P. (1988). Rules, scripts and
prototypes in personal relationships. In
S. Duck (Ed.).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 (pp. 23-39). New York:
Wiley.
- Henderson, M., & Argyle, M. (1986). The
informal rules of working relationships.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7, 259-275.
- Kim, U. (1997). Asian collectivism: An
indigenous perspective. In H. S. R. Kao,
& D. Sinha (Eds.). *Asian perspectives*

- on psychology. London: Sage.
- Koh, Y. J., Mendelson, M. J., & Rhee, U. (2001). *Friendship quality and friendship networks in Korean and Canadia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nuscript, McGill University, Montreal, Quebec.
- La Gaipa, J. J. (1987). Friendship expectations. In R. Burnett, P. McGhee, & D. Clarke (Eds.). *Accounting for relationships: Explanation, representation and knowledge* (pp. 134–157). New York: Methuen.
- La Gaipa, J. J. (1990). The negative effects of informal support systems. In S. Duck (Ed), *Personal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pp.122–139). London: Sage.
- Levitt, M. J., Guacci-Franco, N., & Levitt, J. L. (1993). Convoys of social support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Structure and fun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811–818.
- Mendelson, M. J. (1995). *The McGill Questionnaire Negative Feelings*. Unpublished measure, McGill University, Montreal, Quebec.
- Mendelson, M. J., & Aboud, F. E. (1999).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in lat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1*, 130–132.
- Mendelson, M. J., Goldbaum, S., & Semeniuk, J. (1995). *Handling Disagreements Questionnaire*. Unpublished measure, McGill University, Montreal, Quebec.
- Mendelson, M. J., & Kay, A. C. (2001). *Positive feelings in friendship: Does imbalance in the relationship matter?* Unpublished manuscript, McGill University, Montreal, Quebec.
- Park, Y.-J. K. (1996). *Das soziale Netzwerk in der frühen Adoleszenz: Eine kulturvergleichende Untersuchung zweier Generationen aus Korea und Deutschland*. Unveröffentlichte Dissertation. Universität zu Köln, Köln.
- Rahim, M. A. (1983). A measure of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 368–376.
- Rahim, M. A., & Magner, N. R. (199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First-order factor model and its invariance across group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0*, 122–132.
- Suh, E., Diener, E., Oishi, S., & Triandis, H. C. (1998). The shifting basis of life satisfaction judgments across cultures: Emotions versus nor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482–493.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Oxford: Westview.

- Walster, E., Walster, G. W., & Berscheid, E. (1978). *Equity: Theory and research*. Boston: Allyn and Bacon.
- Weiss, R. S. (1974).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s. In Z. Rubin (ED.). *Doing onto others* (pp. 17-26).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Won-Doornink, M. J. (1985). Self-disclosure and reciprocity in conversation: A cross-national stud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8*, 97-107.
- Yamaguchi, S. (1994). Collectivism among the Japanese: A perspective from the self.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p. 175-188). Newbury Park: Sage
- Yum, J.-O. (1987). The practice of Uye-Ri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D. L. Kincaid (Ed.). *Communication theory: Eastern and western perspectives* (pp. 87-100). San Diego: Academic Press.

Friendship Supports, Conflict-Resolution Styles, and Friendship Networks in Korean and Canadian University Students

Yun-Joo Koh* · Unhai Rhee* · Morton J. Mendelson**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Dept. of Psychology

McGill University**

The differences of friendship supports, conflict-resolution styles, and friendship network characteristics between Korean and Canadian university students were examined, and it was investigated if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friendship expectations and collectivism account for the observed differences in friendship variables. Participants (N=420)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ree groups, each of whom completed a different set of questionnaires, in each country. The three sets contained the measures of friendship expectations, collectivism,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they also contained the measure of either friendship functions (Group FF), conflict resolution (Group CR), or the friendship network (Group FN). Canadian students acquired more friendship supports, and Korean students gave in more frequently in conflict, but the differences were generally not significant after controlling for friendship expectations and collectivism. Korean students had larger friendship networks and lower densities of friendship networks than did Canadian students. The effects of expectations and collectivism on these structural differences in friendship networks were not significant.

Keywords : friendship, friendship support, conflict-resolution styles, friendship network, collectivism, friendship expectation

